

2018년 4월 30일

emerics@kiep.go.kr

제14대 말레이시아 총선 및 정국 전망



©REUTERS

- 선거관리위원회가 14대 총선 일정을 2018년 5월 9일로 확정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함.
 - 나집 총리가 4월 7일 의회 해산을 공표함에 따라, 4월 28일 후보 등록 이후 11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총선이 실시될 예정임.
 - 하원의원 222명, 주의원 587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서는 2008년부터 집권한 나집 총리의 여당연합(BN)과 마하티르 전 총리가 이끄는 야당연합(PH)간 대결이 예상됨.¹
 - 마하티르 전 총리(1981~2003년 집권)는 여당연합 지도자이자 나집 총리의 후견인이었으나, 총리의 비리 스캔들 이후 야권으로 돌아섬.
 - 여당연합 중 나집 총리가 속한 통일말레이시아국민조직(UMNO)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현재까지 61년간 집권해왔으나, 최근 1MDB 비리 스캔들로 위기에 직면함.
 - 나집 총리가 2009년에 설립한 국영투자기업인 1MDB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2015년부터 불거짐에 따라 국내외에서 수사가 진행중임.
- 총리의 비리 스캔들로 여당연합의 입지가 약해졌으나, 다수 인종이자 주요 지지층인 말레이계에 대한 우대정책 지속, 총선 승리를 겨냥한 각종 조치 시행 등 요인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.
 - 정부는 두뇌유출, 생산성 저하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, 1970년대부터 말레이계 우대정책인 ‘부미 푸트라 정책’을 유지하고 있음.²
 - 나집 정부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 재획정, 가짜뉴스 법안 통과 등 정권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함.

1) 말레이시아 국회는 양원제로, 상원 70명(26명 선거로 선출, 44명 국왕 임명, 3년 임기), 하원 222명(총선으로 선출, 5년 임기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하원은 법안 발의 등 국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나, 상원은 하원이 발의한 법안을 동의하는 정도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함.

2)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국가로, 2016년 기준 인종 구성비율은 말레이계 68.6%, 중국계 23.4%, 인도계 7%, 기타 1%임(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).

- 의회는 게리맨더링(자의적 선거구 획정)이라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재획정안을 통과 시킴(18.3.28).
- 말레이시아 의회는 가짜뉴스 유포시 최대 6년의 징역형 또는 50만 링깃(약 12.8만 달러)의 벌금 형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법안(The Anti-Fake News Bill 2018)을 승인했으며 (2018.4.2), 이는 비리 스캔들 관련 비난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.
- 말레이시아 사회등기소(Registrar of Societies)는 의회 해산 직전 마하티르 전 총리가 속한 당인 말레이시아원주민연합당(PPBM)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30일간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림(2018.4.5).

표 1. 제14대 말레이시아 총선 관련 일자별 주요 내용 정리

일자	주요 내용
2018. 3. 28	선거구 재획정안 통과
2018. 4. 02	가짜뉴스법안 통과
2018. 4. 05	마하티르 전 총리의 PPBM에 대해 30일간 활동 정지 조치
2018. 4. 07	의회 해산
2018. 4. 28	후보 등록
2018. 5. 09	제14대 총선 실시

자료: 언론자료 종합.

- 여당연합의 승리가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한편, 4차 산업혁명, 디지털경제 등 신규 분야 육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.
- 여당연합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나, 야당연합에 의석을 많이 빼앗길 경우 여당연합 내 갈등이 심화되어 나집 총리가 낙마할 가능성은 있음.
 - 여당연합 측은 중진국합정 탈피를 위한 경제 분야 주요 공약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하이테크산업 및 석유화학 부문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, 교통인프라 확충, 4차 산업혁명 전략 마련 및 추진, 디지털경제 육성 등을 내세움.
 -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18년 2월에 4차 산업혁명 정책 기본틀(My-i4.0) 초안을 발표함.
 - 이에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관련 신규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,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, 고부가가치 제조업, 석유화학산업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.

참고자료

Nikkei Asian Review, EIU, Barisan Nasional 홈페이지 등

(작성: 신민금 전문연구원 /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)